

# LG트윈스 이성우 “마지막 불꽃 태울 것”

불혹의 나이...마지막이라는 각오 훈련 매진  
“LG에서의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최고 시간”



LG 트윈스의 포수 이성우(40)가 올해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이라고 각오를 보였다. 이성우는 지난해 7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4(77타수 18안타)에 3홈런

11타점을 기록했다. 백업 포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소 역할을 했다. KIA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이성우는 SK 와이번스를 거쳐 2019년 LG 유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어 이성우는 올 시즌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성우는 “시즌이 끝나고 광주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체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항상 해오던 루틴으로 운동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아무래도 나이가 불혹에 접어들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컨디션 파트에서 짜준 프로그램에 따라 보강 운동과 웨이트 운동을 하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타격감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

그는 “나는 수비 백업 선수이고 타격에 대한 재능도 자신감이 없었다. 작년 전지훈련 때 야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박용택 형에게 타격에 대한 조언을 구한 후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정말 감사 드린다. 좀 일찍 조언을 구할 걸 그랬다”고 이야기했다.

생애 첫 만루홈런에 대해서도 “인기 구단에서 야구를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미 점수 차이가 많이 났고 이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광스럽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터뷰를 많이 했다. 정말 감사하다. 지금까지 여러 팀을 많이 옮겨 다니며 야구를 했는데 LG에서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이성우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시즌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늘 가슴이 아픈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혼자 아

이들을 돌보며 외롭게 지낸 아내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이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빠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주고 있다”고 웃었다.

이어 “혼자 고생하는 아내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이들과 자주 못보고 놀아주지 못해서 아빠가 야구선수를 안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TV에 나오는 아빠를 보면서 응원하며 행복해 하는 아이들이 있어 올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올해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친구 같은 아빠로 돌아가 그동안 못했던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 주겠다.”

이성우는 매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즌에 임하고 있다.

이성우는 “2017년부터 매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스스로 야구인생을 행복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단 하나 소망이 있다면 우리 후배들이 좋은 포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선배로서 박수를 쳐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팬들과 후배들에게 야구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은퇴로 고민할 때 손을 잡아 준 구단에 정말 감사하고 처음 입단했던 LG에서 은퇴 할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팬들에게도 각오를 전했다.

그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에서 팬들을 많이 뵈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약속 드린 목표인 우승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올해는 꼭 우리 선수들이 김현수 주장을 필두로 더욱 노력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 팬들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서선욱기자



## ‘코리안 좀비’ 정찬성, 최소 2승 목표

‘코리안 좀비’ 정찬성(34)이 재기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정찬성은 최근 유튜브로 활동하며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찬성은 지난 13일 커넥티비티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으로 격투기 훈련은 할 수 없지만 다행히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이 가능해 웨이트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정찬성은 가장 최근 경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지난해 10월 정찬성과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대결은 시작 전부터 격투기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정찬성은 오르테카에게 통한의 일격을 당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회 이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정찬성의 대회 준비과정도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지난 오르테카전의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정찬성은 “당시 부담이 많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며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르테카전 이후 정찬성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다음 상대로 자빗 마고메드 드사리포브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자빗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185cm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자랑하는 자빗은 현재 페더급 랭킹 3위에 올라있지만 2019년 11월 이후 출전하지 않고 있다.

정찬성은 “장신의 파이터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며 “전략에 대해서는 파이트 레디 팀, 여러 코치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해 두 경기 이상 출전해 최소 두 경기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찬성은 “(UFC 측에) 4월 출전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후 “아직 챔피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난 패배에 대한 설욕 의지를 다졌다.

김미희기자

## ‘골대 불운’ 손흥민, 풀럼전 평점 6점



골대 불운에 막힌 손흥민(29·토트넘)이 풀럼전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0~2021시즌 EPL 16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골타임을 뛰었지만, 골 사냥엔 실패했다.

토트넘도 전반 25분 헤리 케인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29분 풀럼의 이반 카발레이로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승리를 놓쳤다.

승점 1점에 그친 토트넘(승점 30)은 리그 6위에 머물렀다. 최근 토트넘 100호골과 유럽 무대 통산 150호골로 펄펄 날았던 손흥민은 이날 골대 불운에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 후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주며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엔 골대를 때리기도 했다. 레길론의 골은 오프사이드였다. 좋은 위치를 잡았지만, 골이 필요했다”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 전남드래곤즈 ‘빌드업 GK’ 김다솔 FA로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GK 김다솔을 FA로 영입했다.

김다솔은 2010년 포항스틸러스에서 프로 입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까지 5년간 단 33경기 출전했을 정도로 베테랑 GK 신화용의 그늘이 컸다.

출전 기회를 찾아 떠난 대전, 인천에서 자리잡지 못한 김다솔은 2017시즌 여름 수원FC에 입단했다.

그리고 그는 수원FC에서 한 시즌

반 동안 37경기 36실점으로 0점대 실점율로 활약하며 개인 프로 커리어에서 최고 전성기를 보였다.

김다솔은 수원FC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수원FC로 이적했지만, GK 포지션 특성상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이 흘러 FA가 되었다. 전남은 출전 기회만 주어진다면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김다솔을 영입하게 되었다.

김다솔은 뛰어난 위치선정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기운영을 보이는 골키퍼이다. 볼 컨트롤과 패스가 좋아 빌드업에 능하며, 큰 키를 활용한 공중볼 처리와 수비 조율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김다솔은 “팀이 승격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입단 소감을 말했다. 어느덧 프로 12년차가 된 김다솔이 그간 쌓은 경험과 녹슬지 않은 기량으로 전남에서 제 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SK행’ 김상수 “힘든 결정, 따뜻한 말에 마음 움직였다”

“SK, 강팀이라고 생각...잠시 주춤했을 뿐”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 히어로즈에서 SK 와이번스로 이적한 김상수. (사진 = SK 와이번스 제공)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10년 넘게 몸담은 팀을 떠나게 된 김상수(33·SK 와이번스)는 “결정하는게 조금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정든 팀을 떠나야하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SK의 따뜻한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상수는 13일 사인 앤드 트레이드가 발표된 뒤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하면서 키움 히어로즈를 떠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11년을 생활한 팀”이라며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하도록 도와주겠다’, ‘필요하다’는 SK의 따뜻한 말이 마음을 움직였다. SK에서 꾸준히 연락이 왔고, 나를 높게 평가해 준 부분에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의 사인 앤드 트레이드 소식은 13일 발표했다. 2020시즌을 마친 뒤 FA가 된 김상수는 먼저 원 소속팀인 키움과 계약기간 2+1년, 총액 15억5000만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4억원, 연봉 3억원, 옵션 1억

5000만원 등의 조건이다. 옵션 행사 시 계약금 1억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계약 직후 키움은 김상수를 SK로 트레이드했다. SK는 현금 3억원과 2022년 2차 4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내줬다.

이로써 김상수는 2010년부터 11 시즌 동안 몸 담았던 키움을 떠나게 됐다.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김상수는 2010년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의 전신인 넥센 유니폼을 입고, 이후 한 팀에서만 뛰었다.

오랜 시간 뛰었던 팀을 떠나게 된 김상수는 자필 편지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가 발표된 직후 직접 쓴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올렸다.

김상수는 “떠나게 돼 키움 팬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더 잘할 수 있었다는 후회도 들더라”며 “어제 결정을 한 뒤 새벽 2,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찮게 편지지가 눈에 띄더라. 키움 팬 분들

께 항상 받기만 하고, 편지 선물에 답을 한 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답장을 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필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야구가 구구절절하게 쓰기보다는 마음 속에 있는 진심만 전달했으면 해서 편을 잡았다”며 “편지를 쓰고 냈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 말했다.

키움 구단이 이번 겨울 논란에 시달리면서 김상수의 FA 계약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그런 와중에 SK는 꾸준히 김상수에 관심을 보였다. 마음이 움직인 김상수는 SK와 합의한 뒤 키움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는 “계약이 늦어진다고 해서 조바심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분명 나를 필요로 하는 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정리가 되면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 1월30일 이전에는 계약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키움과 계약에 좀처럼 진전이 없었고, SK에서 꾸준히 연락을 했다. 결정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다. SK 민경삼 사장님과 류성규 단장님의 따뜻한 말에 결심을 했다”며 “김치현 키움 단장님도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내비쳤다.

새 동지가 될 SK에 대해 김상수는 “강팀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SK를 상대로 평균자책점이 좋지 않았다”며 웃었다.

실제로 2020시즌 SK전 평균자책점이 14.73에 달했던 김상수는 “SK는 우승도 한 팀이다. 늘 까다로운

팀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잠시 주춤했다고 생각한다. 움추러 들다가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너지가 발휘되면 다시 좋은 성적을 낼 팀”이라고 강조했다.

SK가 김상수를 영입한 첫 번째 이유는 불펜 강화다. SK는 2020시즌 팀 불펜 평균자책점 5.94로 최하위였다. SK는 2019년 40홀드로 홀드왕에 오른 김상수가 불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상수에 기대하는 부분은 단지 성적 뿐만이 아니다. 류성규 SK 단장은 “김상수가 최근 2년간 주장을 맡은 경험이 젊은 투수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상수는 “스스로 A급 선수가 생각한 적이 없다. 늘 꾸준한 선수가 되려고 노력한다. 아프지 않고 꾸준히 하면 좋은 성적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며 “팬 분들이 좋아하는 선수, 감독과 선수, 코치, 프런트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선수. 후배가 존경하고 선배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베테랑 역할에 대해 김상수는 “야구인으로서 후배가 좋은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선배의 의무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이기에는 하지만, 선수들에게 도움이 된 FA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어린 선수들이 서슴없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움을 주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다는 김상수는 “꾸준히 1년에 50경기 정도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겠다”며 “일단 팀이 성적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SK가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